왜 남북산림협력인가?

문예찬(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자)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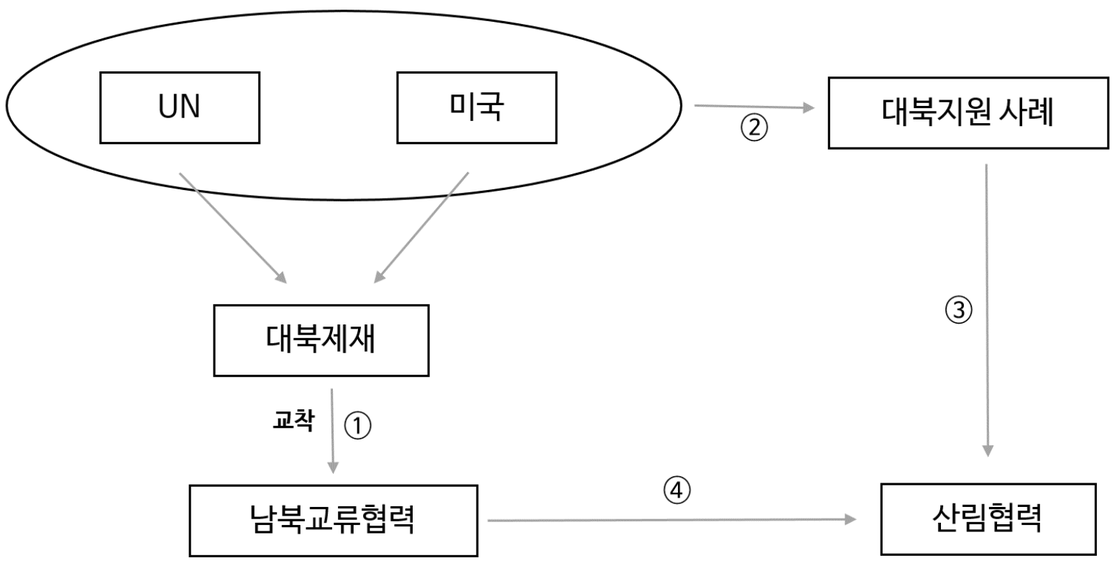
본 논문은 “왜 남북산림협력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을까?”를 주요 연구질문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남북산림협력이 진행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남북 산림법 및 정책, 산림협력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이종민 외 2017; 최현아 2018; 문예찬·이현출 2021), 정작 산림협력이 중요한 이유에 중점을 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이 추진된 주요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3) 연구 흐름

남북교류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교착되었다. (연구흐름도의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지원 사례는 추진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흐름도의 ②) 산림협력은 남북교류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며, (연구 흐름도의 ③④) 남북산림협력의 추진 배경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방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 북한,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산림 관련 논의를 분석하여 남북산림협력의 중요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흐름도

3. 결론

지금까지 남북산림협력이 추진된 배경을 국제사회, 북한, 남북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못한 남북산림협력 진행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림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호하게 살펴보는 것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분석단위를 통해 최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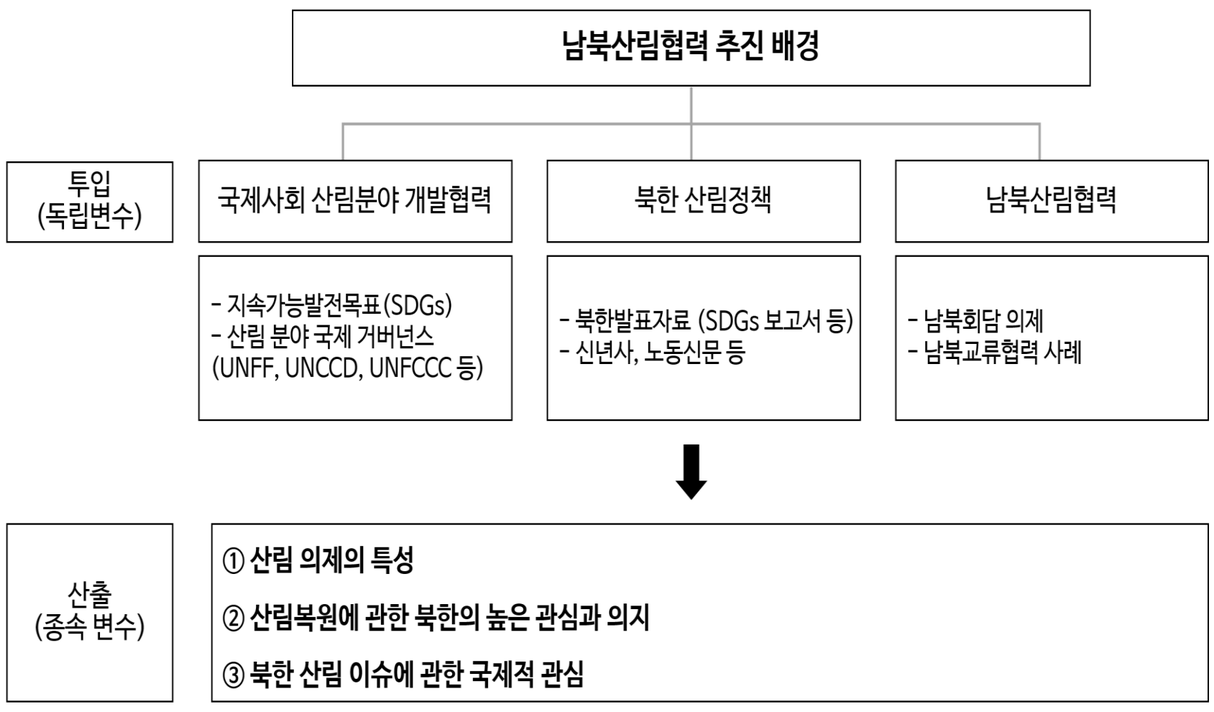
다만, 남북산림협력의 추진 배경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남북산림협력의 추진 배경을 토대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비교방법

비교방법은 분석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연구방법으로, 적은 사례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계방법과 비슷하다(서동찬 2018).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를 국제사회, 북한, 한반도로 한정하여 통계 방법을 사용할 만큼 충분한 크기의 분석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분석단위 모두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고, 변수 간 상호작용에 따라 분석단위마다 다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남북산림협력의 추진 배경은 국제사회, 북한, 남북관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개발협력 현황, 북한의 산림정책, 남북산림협력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연구분석틀

2) 연구결과

(1) 산림 의제의 특성

북한 내의 산림 파괴는 홍수 발생, 거주지의 감소, 생물다양성 약화 등으로 이어지며(UNEP 2003), 농지손실, 토지황폐화, 가뭄, 식량난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김성일 외 2014). 북한은 에너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산림을 결부시켜 국가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산림복원에 관한 북한의 높은 관심과 의지

김정은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신년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산림정책은 산림자원 이용구조의 전환, 다목적 산림경영 등 장기적 목표를 동반한다(최현아 2018). 북한은 UNCCD, UNFCCC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언급하여 산림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3) 북한 산림 이슈에 관한 국제적 관심

지금까지 개별국가, 국제기구, 국제 NGO 차원에서 대북 산림지원을 이행했으며, 총 32개의 기관이 참여하였다(Kim et al 2020). 환경협력은 파리협약 중심의 신기후변화 체제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역시 강하게 원하는 의제이다(김유철·이상근 2018). 북한 산림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으며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김성일·이동호, 『북한 산림, 한반도를 사막화하고 있다』, 스토리윤, 2014, 59-60
김유철·이상근, 2018,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7(1), 65-88
문예찬·이현출, 2021,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모색』, 『분쟁해결연구』, 19(1), 33-65
서동찬, 2018,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
이종민·송민경·박경석, 2017,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통일문제연구』, 29(2), 49-81
최현아, 2018,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27(2), 1-20
Kim, et al. “Why Is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Hard to Accomplish?”,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8(2),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020, 309-331
UNEP,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2003, 4